

삼양식품 실적 쑥... 주주환원·성장동력 '다잡기'

164억 현금 배당 의결... 753만 주 대상 1주당 2200원 1분기 최대 실적 합입어 K푸드 대장주 입지 굳게 다져 신축 밀양2공장 가동... 생산량 늘려 수출 확대 가속

삼양식품이 고공행진하는 주가 흐름 속에 중간 배당까지 결정하며 주주환원과 성장 동력을 동시에 가속화하고 있다. 불닭 시리즈를 앞세운 글로벌 매출 확대, 신공장 가동에 따른 생산능력(CAPA) 증대, 안정적인 브랜드 파워가 맞물리며 K푸드 대장주 입지를 공고히 하는 모습이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12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주당 2200원의 현금 중간 배당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총 배당금 규모는 164억788만 원이다. 배당 기준일은 27일이다. 시가배당률은 0.2%이며, 자기주식 7만4887주를 제외한 발행주식 753만3015주를 대상으로 선정됐다.

불닭 시리즈를 앞세운 삼양식품의 주가 흐름도 가파르다. 12일 기준 삼양식품 주가는 144만9000원으로 올해 들어서는 90% 상승했다. 시가총액은 10조9000억 원대로 일본 도요수산을 넘어 글로벌 라면업계 시총 1위 자리를 차지했다. 불닭 시리즈의 순환에 힘입어 지난해 초 23만4500원이던 주

가가 1년 7개월 만에 6배 이상 뛴 셈이다. 주가를 뒷받침해 준 건 실적 개선이다. 삼양식품의 2024년 연결 기준 매출은 1조73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3442억 원으로 133% 급증했다. 영업이익률도 12%에서 20% 수준으로 확대되며 수익성이 크게 향상됐다.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5290억 원,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340억 원으로 67% 성장했다. 영업이익률은 25%를 기록하며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견조한 실적의 배경에는 높은 해외 매출 비중이 있다. 삼양식품의 해외 매출 비중은 77%로 미국·유럽·동남아시아에서 불닭볶음면과 소스류 판매가 호조를 보이며 수출이 매 분기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미국 수출 비중이 26%에 이르며, 현지 외식 브랜드 판다 익스프레스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불닭 산메뉴 출시로 북미 시장 공략 속도를 높이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실적 모멘텀 강화에 주목하고 있다. 6월 완공된 밀양 제2공



삼양식품은 12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주당 2200원의 현금 중간 배당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서울의 한 마트에서 시민이 불닭볶음면을 구입하고 있다. 박미나 기자

장이 7월부터 본격 가동되면서 9월부터 2교대 전환을 통해 생산능력이 3분기 1억3000만 개, 4분기 2억2000만 개로 확대된다. 대량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수출 확대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2027년 완공 예정인 중국 생산기지는 매년 25% 이상 생산능력 증설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변수에도 대응책이 마련돼 있다. 미

국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직접적인 영향이 우려됐지만, 삼양식품은 가격 인상과 판가 정책 조정을 통해 마진 하락을 방어한다는 계획이다. 브랜드 충성도가 높아 가격을 올려도 수요가 있는 만큼 소비자 이탈이 제한적인 것이라 분석이 우세하다.

증권사들은 일제히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다올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은 각

각 180만 원, 178만 원을 제시했고, 유진투자증권도 기존 110만 원에서 175만 원으로 높였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중국·동남·미국 등 해외 시장 다변화와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해 글로벌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며 “공장 증설과 효율적 공급망 운영을 통해 생산·판매 전 과정을 최적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연 기자 nykim@skyedaily.com

가맹점에 “세제 이것만 써” 강매 버거킹 과징금 3억 원

공정거래위원회가 버거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비케이알의 세척제 강매 및 기간적 정보 제공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비케이알은 2013년부터 세척제(15종)와 토마토(16개 품목)를 가맹점주가 ‘자율적으로 구매 가능한 권유 품목’으로 정보공개서에 기재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중에서 구입이 어려운 특정 미국 브랜드 세척제와 승인된 국내 생산업체 토마토만 사용 가능하도록 지정하고, 가맹본부의 내부 구매시스템을 통해서만 공급했다.

가맹점 점검 과정에서 승인 제품이 아닌 세제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평가점수를 감점하고, 일정 점수 미만이면 경고 공문 발송, 배당 영업 중단,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했다. 토마토의 경우에는 미승인 제품 사용이 확인되면 점검결과를 0점 처리하고 매장 폐쇄나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 같은 운영 방식은 가맹점주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사실상 본부가 지정한 세척제를 구매할 수밖에



않았다. 공정위는 세척제가 버거킹의 통일적 이미지나 핵심 제품 품질과 직접 관련이 없는데도 특정 제품 사용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비케이알이 세척제와 토마토를 사용 여부 점검 및 불이익 부과 대상으로 운용하면서도, 이를 가맹계약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임에도 문서상 ‘권유 품목’으로 기재해 안내하지 않은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외식업 가맹 본부가 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을 우회적으로 강제하는 관행을 제재하고, 가맹점주가 성능이 동등한 제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나연 기자 nykim@skyedaily.com

“해외인재 100만 명 유치하면 부가가치 145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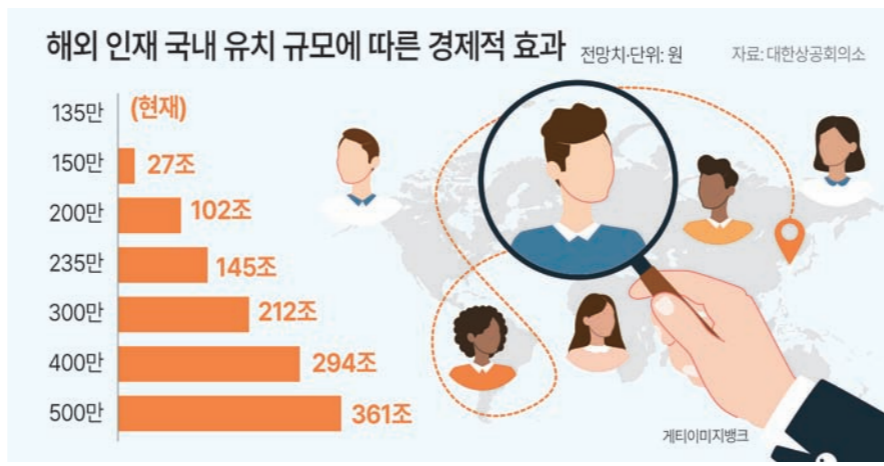
상의 해외 시민 유치 경제효과 분석 보고서 “GDP 5% 상승” 韓 성장 위한 4가지 핵심으로 ‘AI·출생률·경쟁력·내수’ 강조

해외 인재를 국내에 다수 유치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파급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3일 김택과 고려대 교수팀과 공동으로 연구한 ‘새로운 성장 시리즈(9) 해외인재 유치의 경제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외 인재 100만 명을 한국에 유치하면 전국 지역경제에 최소 145조 원의 부가가치가 늘며 이는 국가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6.0%에 해당하는 규모다.

보고서는 단순 인력이 아니라 해외 인재가 필요한 이유로 △인공지능(AI) 전환에 많은 인재가 필요한데 국내 교육을 통해서 AI 전사를 육성하기에는 역부족 △출생률 저하로 산업 인력 부족 △우수 인재 적자국으로서 산업 경쟁력 향상 △내수 부양 등을 꼽았다.

김택과 교수는 “총수요 측면에서 보면 단순한 인구 확대가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지닌 해외 고급 인력 유입으로 소비가 느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 생



산성과 산업 경쟁력 향상과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통해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해외 인력 유입의 키”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해외 인재 유치 전략으로

△외국인 정주형 특화 도시 △글로벌 팹 (Fab·반도체 제조 공장) 유치 △해외 인재 국내 맞춤형 육성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외국인 정주형 특화 도시 샌드박스를 제

안했다. 정주 인프라 수용 여력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 클러스터와 관련성 높은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비자 혜택 △세제 감면 △교육·의료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한 도시 내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다음으로 전략산업 생산기지의 팹 유치를 제안했다. 비자·정주 혜택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팹리스·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입지 결정은 해외 인재를 끌어들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인재로 채워지지 않는 산업 고급 인력을 해외에서 국내 기업에 맞춰 육성하고 데려오는 ‘선 육성 후 도입’ 전략을 제시했다. AI·반도체·바이오·조선 등 지역 주력 산업에 특화된 인력개발 사업을 통해 현장 맞춤형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가족 동반 정착까지 아우르는 풀패키지형 유치 전략이 핵심이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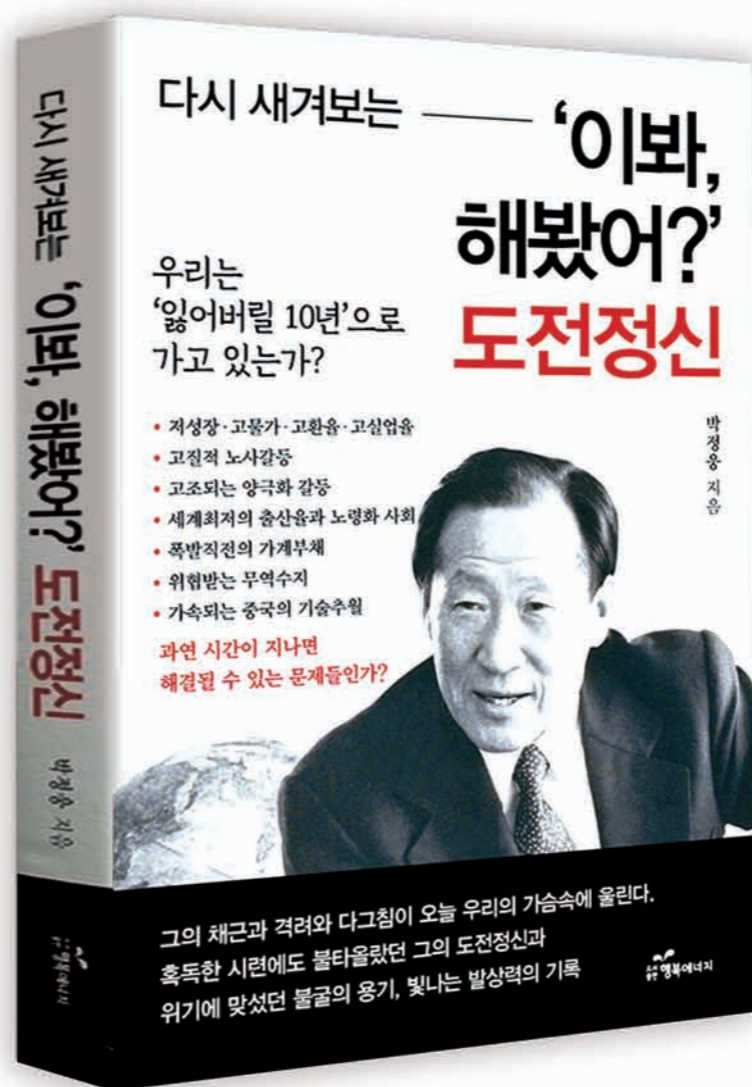
다시 새겨보는 — ‘이봐, 해봤어?’ 도전정신

우리는 ‘잃어버릴 10년’으로 가고 있는가?

세계적 격동의 시기, 다시금 되돌아보는 현대 정주영 회장의 위대한 삶의 궤적

중동 건설시장 도전, 대한민국 최초의 대형 조선소 건설 도전, 현대제철 건설,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대한민국이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건너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은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발자취를 다양한 사진자료와 함께 뒤따라간다. 단순히 수박 겉 핥기 식으로 그의 위업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경련 간부로서 직접 보고 들은 정주영 회장의 생생한 언어와 행동을 통해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 속 우리에게 다시금 필요한 도전정신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그 답을 구한다. 때로는 무모해 보이지만 혁신과 성장을 가져왔던 정주영 회장의 도전정신, 경영학의 태두 ‘피터 드러커’조차도 극찬했다고 알려진 그의 정신이야말로 우리에게 다시금 영감과 용기를 심어 줄 것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박정웅 지음 | 348쪽 | 25,000원 | 행복에너지



Part 1 멈출 수 없는 도전

- 01 삼식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은 시대의 ‘이단아’
- 02 ‘바퀴 달고’ 세계를 누비는 국산 자동차의 오늘과 내일
- 03 국가의 명운을 걸고 뛰어든 뜨거운 열사의 땅 중동 건설시장
- 04 한국인의 저력을 세계에 알린 전지전능 조전소
- 05 40년 숙원 고로에 불을 당긴 현대 제철
- 06 가슴에 묻고 간 필생의 염원 통일
- 07 중국, 가깝고도 멀 수밖에 없는 나라
- 08 국제무대 등단의 무대 전경련 회장직

Part 2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놓은 다리를

- 01 경제성장을 위해 절실했던 대동맥 경부고속도로 건설
- 02 자동차 독자개발을 놓고 벌인 미국과의 비밀 담판
- 03 모두 안 된다던 조선소 발상, 그리고 세계를 놀라게 한 기록
- 04 석유파동으로 빈사 상태가 된 한국경제를 구한 기산천외한 발상, 중동 건설 진출
- 05 88서울올림픽 유치기 가능하다고 믿었던 천하에 오직 한 사람

Part 3 그의 정신, 그의 기성

- 01 통일에 대한 갈망과 집념은 그에게 하나의 신앙이었다
- 02 정치쇄신, 더 절사는 사회... 통일을 위해 단졌던 비장한 출사표
- 03 평생 노동자의 가슴을 품고 살았던 ‘성공한 노동자’
- 04 돈 액수의 자릿수보다 쓰임 가치를 챙겼던 ‘큰손’과 ‘구두쇠’
- 05 앞서는 비결, 남다르게 생각하고 남다르게 행동해야
- 06 피터 드러커 Peter Drucker 교수가 본 정주영
- 07 세기의 도전자, 위기의 승부사

Part 4 인간 정주영

- 01 정주영 · 이범철, 갈등과 아름다운 화해
- 02 만능 엔터테이너 재벌 총수의 18년
- 03 건강관리 비법과 아킬레스의 건
- 04 단순화와 직관력의 달인